

오류 많은 5·18 다큐 영상 20년째 그대로

5·18 추모관, 20분·40분짜리 97년 제작해 지금도 상영
유네스코 등재, 5·18 왜곡 등 변화 맞춰 업그레이드해야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서 상영하는 5·18 다큐멘터리가 20년 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상의 내용도 곳곳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이하 5·18묘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5월 영령을 기리는 다큐멘터리 영상 ‘5·18민주화운동’(20분)과 ‘다큐멘터리 5·18’(40분)을 상영하고 있다. 이 영상은 참배객들이 시청을 원하면 상영한다. 영상이 상영되는 추모관은 월평균 3000여 명의 참배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은 20년 전인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되거나 새로 제작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정부가 특별사면을 통해 전두환·노태우를 석방한 이후 5·18왜곡과 편향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문제점 등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영상 내용에도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분짜리 ‘5·18민주화운동’ 영상은 앞 부분에서 ‘5월15일 이후에는 잠잠해 있었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5월 15일 당일 광주에선 전남대 학생들이 최초로 가두시위에 나섰고, 5월16일에는 금남

로 도청 앞 분수대에서 그 유명한 ‘민족민주화 햇불성화’가 열렸다. 이 영상에선 또, 5월21일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와 5월27일 도청 진압 작전 영상이 뒤엎혀 있다. ‘총을 들고 나와라, 투항하라!’는 계엄군의 방송은 5월27일 도청진압

작전 상황이지만, 영상에는 5월21일 일어난 일로 기록돼있다. 또 5월21일은 도청 앞 광장이 공수부대에 의해 장악됐던 시기인데도 영상에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집회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화면 편집 등의 기술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상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는데도 아직껏 20년 전 편집·제작된 영상이 상영되면서 침담 영상기법에 익숙한 신세대들



이제 편히 쉬소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5·18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초·중·고 학생들 ‘그날’ 되새기며 주먹밥 먹는다

광주교육청 공동체 의미 교육…27일까지 5·18 추모 행사

1980년 5월,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상인들은 길가 곳곳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시민군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줬다. 좁고 어수선한 시장 골목에서 허리 숙여 밥을 짓던 상인들의 모습은 ‘광주 공동체’의 상징적 모습이 됐다. 대인시장 상인들은 차를 타거나 걸어가는 학생들에게도 주먹밥을 건넸다. 주먹밥이라고 해 봐야 기름에 볶은 밥에 소금을 뿌려 김으로 싸 정도였지만, 허기진 시민군과 학생들은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18일 광주지역 178개 초·중·고교 학생들이 주먹밥을 먹는다. 1980년 5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먹는 주먹밥이다. 37년 전 5월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나눔 공동체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마련한 행사다. 초등학교는 154개교 중

123개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중학교는 37곳, 고교는 15개 학교 학생들이 동참한다. 5월엔 광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5·18 교육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5월 광주를 기억하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미래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계승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광주지역 모든 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인 18일부터 27일까지 2시간 이상 5·18 계기 교육을 진행하고 기념식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5·18 당시 희생된 18명의 학생들이 다녔던 대동고를 비롯, 15개 학교들은 기념식수와 추모우체통 만들기, 추모비 조성 등 학교별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둘러보는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남대도 18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옹벽홀에서 5·18 기념식을 열고, 지난 1980년 5월 24일 전남대 교수 일동 명의로 발표된 ‘대한민국 모든 지성인에게 고함’이라는 선언문을 낭독한다. 전남대는 또 19일 “오월후(後), ‘87년 체제’와 30년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연구소는 ▲5·18항쟁 진상규명과 쟁점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민주주의의 확장 ▲5·18과 공유, 공동체의 미래 ▲촛불과 언론개혁 등 세부 주제로 나눠 5·18 연구와 남은 과제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정신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교육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등은 18일 오후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0년 전 영상은 80년 5월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5·18 역사왜곡 등 시대적 변화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정신을 담고, 신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계엄군 전남대·도청서 무자비 폭행…통금 저녁 9시로

작전명 ‘화려한 휴가’. 1980년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다. 학교는 쉬었지만 학생들은 쉬지 않았다. 이틀전인 16일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햇불 성화에서 ‘휴교령이 내려면 그 다음날 10시에 교문 앞에 모이자’는 약속 때문이었다.

오전 9시40분 약속을 기억한 전남대 학생들은 하나둘 학교 정문으로 모였을었다. 이들을 막아선 계엄군(7공수여단 33대대)은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진압봉을 휘둘렀다. 만류하는 시민까지도 두들겼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은 5·18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과 시



민은 도청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은 이들을 쫓아왔다. 오후 3시 유동3거리, 7시 광주교, 8시15분 금남로 카톨릭센터에서도 시민과 계엄군은 충돌했다. 계엄군은 대검 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계엄사령부는 광주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9시로 앞당겼다. 11공수여단도 증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세월호 침몰해역 유골 고창석 교사로 확인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 해역에서 발견된 유골이 DNA 분석 결과 단원고 교사 고창석씨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0월28일 세월호 4층 화장실에서 단원고 황지현양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 933일 만에 296번째 희생자로 기록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36분께 진도군 조도면의 특별수색(SSZ-2) 구역에서 수중수색 중에 발

견된 뺏조각 1점이 단원고 체육교사인 고창석씨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협력해 DNA 분석을 했다. 일반적인 뼈의 DNA 분석은 1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엔 의뢰된 유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김현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달출몰 00:30
해질 19:32 달지름 11:20

오월 묘역 가는 길 '재창'

대체로 맑겠으나 낮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3/29	보성	맑음	10/28
목포	맑음	13/24	순천	맑음	13/28
여수	맑음	15/25	영광	맑음	10/27
나주	맑음	9/29	진도	맑음	10/25
완도	맑음	13/26	전주	맑음	12/27
구례	맑음	9/29	군산	맑음	12/25
강진	맑음	10/28	남원	맑음	10/28
해남	맑음	9/27	흑산도	맑음	13/22
장성	맑음	9/28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부	면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서)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08	06:40
	--:--	18:52
여수	07:52	01:20
	19:38	13:45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14/27	15/29	16/30	16/27	16/25	16/25	14/25



◇생활지수	
	관심
	매우높음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인 원 : 선착순 10명

▶비 용 : 100,000원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